

종교적 이상과 사회적 현실

- 한국 통일교인 가족을 중심으로-

이재일
(선문대학교 순결학과)

1. 서론

2. 가족의 의미, 접근방식, 한국 통일교인 가족

- 1) 가족의 의미
- 2) 가족에 대한 접근방식
- 3) 한국 통일교인 가족의 이해

3. 종교적 이상과 사회적 현실의 괴리 좁히기

- 1) 이상과 현실의 관계 맺기
- 2) 보편타당하고 구체적인 가치기준의 설정과 그 활용
- 3) 종교적 이상의 의미 재해석과 반성적 실천
- 4)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협동

4. 결론

1. 서론

종교는 일견 현실세계를 부정하고 초월세계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염밀히 살펴보면 이상적 가치를 현실세계에 구현하려는 것이다. 통일운동 [①](#)도 창조본연의 이상적 가치를 인간 삶의 터전인 현실에 구현하려는 것이다. 통일운동은 세계를 가정의 확대체로 보아 가정을 매우 중시한다.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도 창조본연의 가정이 확대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통일교인은 먼저 각자 자신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종국에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이 세상의 변혁 이전에 자신의 가정을 변혁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통일교인의 가정생활에는 신앙적 이상과 일상의 현실이 만나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필자는 지난 논문 “한국 통일교인 가족의 이상과 현실”[②](#)에서 통일교인 가족이 지니는 신앙적 이상과 그들이 처한 일상의 현실 사이의 괴리를 확인하는 시도를 했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가족에 대한 접근방식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통일교인 가족을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가족이 처한 한국적 상황의 이해와 규범적 방법에 따라 가족의 본질적 이해를 시도했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인 가족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향을 간단히 언급했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지난 논문의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였고, 그리고 지난 논문에서 미흡했던 두 가지 점을 다를 것이다. 첫째, 지난 논문에서 시도한 사회과학적 접근은 가족의 현실적 상황을 해명하고 있으나 가족의 본질을 말하지 않고 있고, 규범적 접근은 가족의 본질과 정체를 해명하고 있으나 현실적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접근 방법의 장단점을 논하고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둘째, 지난 논문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좁히기에서는 해결의 방향성을 간단히 언급했었다. 괴리 좁히기란 결국 일상적 현실을 신앙적 이상에 가깝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좁히기에 초점을 두고 본질과 정체에 맞는 가정이 되도록 현실상황을 개선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가족의 의미, 접근방식, 한국 통일교인 가족 ³⁾

1) 가족의 의미

가족은 다음의 네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가족은 결혼과 혈연 그리고 입양의 인연에 의해 맺어진 사람으로 구성된다. 둘째, 가족의 성원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하나의 가구를 구성한다. 셋째, 가족은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는 상호 작용하고 상호 교제하는 사람들의 통일체이다. 넷째, 가족은 주로 일반적인 문화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공동적인 문화를 유지한다.⁴⁾

그런데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에서 가족이 함의하는 바는 현대의 서양 중심적 사회학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근대 이전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 문화를 이끌었던 이념 중의 하나는 유교였다. 유교는 가족과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생활을 지향했다. 유교 문화권에서의 ‘家’ 또는 ‘家族’은 그 구성원, 생업, 규범, 종교, 역사 등과 연관된 실체였다. 그리고 유교 문화권에서의 ‘家’는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 사람답게 살도록 이끄는 학교요 실천의 현장이었다.⁵⁾ 이처럼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한편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영속적인 것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에서는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가족으로 이해하였고, 사회적 관계도 가족 관계의 확대로 보았다. 한 인간은 집 또는 가문과 연결되어서만 사회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과거 유교 문화권에서는 가족주의를 능가할 개인주의가 발전하지 않고, 가족을 위주로 하는 입장만이 존재해 온 듯하다.⁶⁾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양에서는 개인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는 견해가 강하다. 공리주의자 Jeremy Bentham 은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보았다. 벤담은 이기적인 개인의 결합체인 사회의 기본 원리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므로 사회는 개인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성립되며, 개인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공리주의의 원칙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회는 존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⁷⁾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Herbert

Spencer 는 “개인들의 특징이 전체의 특징을 결정한다.” “개인은 지상의 것이다. 사회는 개인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⁸⁾라고 하였다. 그는 사회를 개인의 목적과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본 것이다.

가족을 사회체제의 기본 단위로 보는 입장에서는 가족이 변화할지라도 본질적 구조는 영속하며 단지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며 외형이 변할 뿐이라고 본다. 그리고 가족을 자연적 공동체로서 사회의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제도라고 본다. 그런데 오늘의 가족 사회학자들은 가족을 절대적 기본 제도나 단위로 보기보다는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수단적 기능의 한 단위로 보고자 한다.⁹⁾

가족은 형태의 다양성을 지닐지라도 가족이 원시 사회로부터 현대 사회에까지 전 인류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이 인류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함을 입증한다. 그리고 인간이 생리적으로 남녀로 구분되어 있어서 남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고 후손을 이어가는 것은 남녀의 결합체인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의 조직체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족에 대한 접근 방식

가족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 학문에서의 다양한 접근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¹⁰⁾ 사회과학적 방법으로의 가족 연구는 제도적·역사적 접근, 구조기능론적 접근, 상호작용론적 접근, 상황적(환경적) 접근, 가족발달론적 접근 등으로 구분된다.¹¹⁾ 한편, 가족 연구에 사용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접근 방식은 구조기능론적 접근과 갈등론적 접근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구조기능론적 접근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을 이해하고 가족과 사회의 적합성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에서 가족은 사회의 존속에 필수적인 기능(사회화와 사회적 통제, 사회구성원의 재생산, 보호와 휴식 등)을 담당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반면에 갈등론적 접근은 현존하는 가족이 인간의 능력을 제한하고 왜곡시키며 노동자와 여성의 역할을 억압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갈등론적 접근은 현존 가족제도의 억압구조를 개혁하여 인간해방을 이루려 한다.¹²⁾

이상에서 논의한 사회과학적 접근은 가족에 대한 연구의 목표를 가족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사회과학적 접근은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가족은 변화하는 것이므로 시대와 상황에 적합하게 가족규범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가족의 실제에 무게 중심을 두므로 가족에 대한 현실적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사회과학적 접근과 대비되는 접근 방식이 있다. 이 접근 방식은 가족의 현실보다는 이상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래서 인간을 가정적 존재라고 규정하고 “가정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룩한 곳”¹³⁾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상적 집단으로서 가족은 그 본질과 이에 따른 규범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규명하고 추구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이를 규범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적 접근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영속하는 가족의 순수 본질과 가족 규범을 전제하고 이러한 사항이 반드시 정립된 정상 가족을 상정한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가족에 神聖性을 부여하여 가족의 본질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본다. 그래서 이상적 가족상을 제시하고 그러한 가족이 담당하는 사회적 기능을 열거한다.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에 근거한 가족 접근이 규범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접근은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는 구조 기능론과 상통하는 면이 많아 구조기능론의 극단적 형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기능론이 가족의 현실에 근거를 둔다면 규범적 접근은 가족의 이상에 근거를 둔다.

3) 한국 통일교인 가족의 이해

(1) 가족의 이상: 통일원리/통일사상적 이해 - 규범적 접근

통일원리는 가정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통일원리는 존재세계의 이상적 구조로서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완성한 근본 기대이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인 사위기대를 말한다. 이 사위기대는 “하나님의 善의 근본적인 기대이므로,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모든 존재와 또 그것들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의 근본적인 기대”¹⁴⁾이다. 이 사위기대 기본형에는 개체적 사위기대, 가정적 사위기대, 주관적 사위기대가 있다. 이 중에서 가정적 사위기대는 하나님을 중심한 완성한 남성과 완성한 여성의 합성 일체화하여 자녀를 낳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가정적 사위기대의 확대체가 이상세계인 천국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 가정적 사위기대에서 창조본연의 3 대상 사랑인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체휼하고 성장해야 완성될 수 있다.¹⁵⁾ 이처럼 완성된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목적이 완성된 기대로 그리고 이상세계의 축소체로 인식하는 통일원리는 가정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한다. 가정의 중요성은 타락과 복귀의 설명에서도 잘 드러난다. 통일원리는 인간 시조의 타락을 불륜한 사랑에 의한 비원리적 가정을 이룬 것으로 보고, 복귀과정에서도 올바른 가정적 사위기대의 회복을 중시한다.¹⁶⁾

통일원리에서 중시하는 가정적 사위기대의 가치는 통일사상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우선 통일사상은 바람직한 인간 행위의 규범을 논하는 윤리론에서 통일윤리론 성립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참사랑, 가정적 사위기대 이론, 삼대상 목적의 개념을 상정한다. 이 중에서 가정적 사위기대를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정적 사위기대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적으로는 家庭的 四位基臺를 통하여 나뉘어져 分性的 사랑, 즉 父母의 사랑, 夫婦의 사랑, 子女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하고 볼 때, 부모나 부부나 자녀는 모두 하나님의 대상이 된다. 부모는 하나님의 제일대상이 되고 부부는 하나님의 제이대상이 되고, 자녀는 하나님의 제삼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합쳐서 三對象 사랑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본 윤리론은 가정 내의 4 위치를 중심한 사랑의 관계를 전적으로 다루게 된다.¹⁷⁾

여기에서 논의되는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참사랑은 가정적 사위기대에서 3 대상 사랑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사랑의 실현장이 가정적 사위기대이고 삼대상 목적도 가정적 사위기대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므로, 통일윤리론 성립의 근거는 결국 가정적 사위기대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의 구현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논리를 따를 때, 통일사상이 윤리를 가족 구성원의 규범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윤리란 가정에서 가정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위의 規範이다. 즉 가정을 기반으로 한 人間行爲의 규범이요, 가정에 있어서 사랑 중심의 授受法을 따르려는 인간행위의 규범이며, 家庭的 四位基臺를 형성할 때의 규범이다. 따라서 倫理는 聯體로서의 규범인 동시에 第二祝福 즉, 가정완성을 위한 규범이기도 하다.¹⁸⁾

나아가 통일사상은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가정의 가족관계가 그대로 확대된 것”¹⁹⁾으로 본다. 즉, 가족 구성원 사이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인간관계가 사회에서의 각종 덕목으로 나타나므로, 가정윤리가 모든 사회의 기초라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사상요강》은 《원리강론》이 제시하는 3 대상 사랑에 형제자매의 사랑을 덧붙여 가정적 사위기대에서의 4 대 사랑을 말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4 대 심정과 4 대 심정의 대상적 범위로서의 4 대 심정권이 가정에서 나타남을 설명한다.²⁰⁾ 가정적 사위기대를 중심으로 4 대 심정권에서 4 대 심정과 4 대 사랑을 체험하며 성장해야 창조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사회는 4 대 심정권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확대한 세계적 4 대 심정권이 형성된 세계라고 보았다.²¹⁾ 이러한 논리는 모두 가정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통일원리는 가정을 중시한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본질인 참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위이면서 심정과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는 道場이고, 천국인을 길러내는 훈련장이 된다.

(2) 가족의 현실: 한국적 상황의 이해 - 사회과학적 접근

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매개체이다. 가족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과 사회통제의 원초적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가족은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회재생산의 일차적인 터전이다.²²⁾ 가족은 구성원에 대한 물질적 신체적 정서적 보호의 장소이고 성원간의 공유와 협동이 이루어지는 집단이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 역할의 주체는 부모이다. 가족은 이러한 기능적

측면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한국 가족은 역사적으로 여성을 소외시키고 억압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안에서 배타적 권리를 추구해오면서 가족 이기주의를 조장하여 全社會的 公益과 대립했다. 그래서 가족은 反共同體的 性向을 배양하고 강화는 장소가 된다고 지적되었다.²³⁾

가족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조직체이다. 한국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자. 먼저,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여러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3 세대 가족보다 1 세대 또는 2 세대의 가족이 증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의 행동과 가치의 측면에서는 서구의 핵가족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 한국 가족의 변화를 행동과 가치의 측면에서 서구적인 핵가족으로 변화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²⁴⁾ 대체적으로 한국 가족에는 전통적인 요소가 약화되면서 근대적인 요소들이 강화되는 가운데 양자가 뒤섞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가족과 근대적 가족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지닌다. 전통적 가족에는 성과 연령 별로 階序的 秩序가 존재하고, 부자관계가 부부관계보다 우선시되며, 부자관계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자녀가 효도와 순종으로 행동할 것이 강조되며, 독립적 개인보다 집단적 가족이 중시된다. 이러한 가족은 공동체적 연대와 상호협조, 가족부양체제의 유지, 사회통제 등의 장점이 있으나, 가족관계가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이며 가족 이기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근대적 가족에서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 平等的 秩序가 존재하고, 부자관계보다 부부관계가 우선시되며, 가족 내에서 독립적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중시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족은 평등적 민주적 성격을 지닌 가족이며, 주체적이며 자율적인 자녀교육이 가능하나, 개인주의에 따른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가 약하고 가족이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²⁵⁾ 현대 한국의 가족에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혼재한다는 것은 곧, 전통적 가족의 특성과 근대적 가족의 특성이 섞여 있으면서 가족 가치관이 혼란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혼재하는 현대 한국의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근대화가 진행되는 역사적 과정에서 전통과 근대가 만나 단절과 변용과 정착이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 한국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개화기에 내생적 사회혁명이나 신문화 혁명을 거치지 않은 채 전통사회가 해체되어 유교적 가족규범이 보편화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유교적 가족규범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생존을 위해 신축적 가족이념을 형성했다. 그것이 反共同體的 家族 利己主義와 擬似 家族主義(연고주의와 온정주의 등)를 특징으로 하는 도구적 가족주의이다. 여기에 가족을 현대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적 측면에서 벗어난 서정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抒情的 家族主義와 천박하고 소모적인 소비지향적 가족관계가 혼합되어, 한국인의 가족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²⁶⁾

근대화뿐만 아니라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현대 가족의 변화는 세계사적 추세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변화는 그 폭이 넓고 속도가 빠르며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한국 가족의 변화는 ‘위기와 문제의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²⁷⁾ 이는 조선 시대 말에 전통적 한국 사회에 서양의 근대 문화가 유입됨으로써 시작된 전통과 근대의 충돌에서 기인한다. 오늘의 한국 가족에는 전통적 가족원리와 근대적 가족원리라고 할 수 있는 요소인 계서적 질서와 평등적, 권위에의 순종과 합리적 의사결정, 독립적 개인과 집단적 가족 등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가족은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과 근대가 만나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反共同體的 家族 利己主義, 擬似 家族主義, 抒情的 家族主義, 消費指向的 家族關係 등으로 위기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교인의 가족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통일교인의 가족은 한국적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되 신앙으로 받아들인 통일원리적 이상을 삶의 목표로 삼고 이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통일교인 가족은 전통과 근대의 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 이상과 사회적 현실의 괴리 문제라는 이중적 과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상과 현실의 괴리 줍하기

1) 이상과 현실의 관계 맺기

전통과 근대의 충돌이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상이한 가치 사이의 갈등’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제 ‘상이한 가치 사이의 갈등’의 성격을 지니는 종교적 이상과 사회적 현실 사이의 괴리 문제의 해결에 논점을 맞춘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위에서 적용한 규범적 접근과 사회과학적 접근이 지니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적용한 규범적 접근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와 신앙은 현실의 변혁과 초월을 지향한다. 그리하여 규범적 접근은 순수 본질의 세계를 전제하고 변혁과 초월의 궁극적 종착점으로서의 이상에 주목한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상적 가족상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집중되기 쉽다. 종교적 이상의 정당성은 믿음으로 수용된다. 그러므로 변혁의 궁극적 종착점에의 도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미지수이다.

규범적 접근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정의 본질적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통일원리/사상은 존재세계의 이상적 구조의 하나로 가정적 사위기대를 제시하고 가정적 사위기대의 확대가 천국이라고 본다. 즉, 가정은 이상세계의 축소체이므로 윤리 성립의 근거요 4 대 사랑이 완성되어야 하는 4 대 심정권이 된다. 이러한 언급은 미래 가족의 이상일 뿐 통일교인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

규범적 접근의 단점은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가정상을 당위적으로 제시하고, 그 논리와 사고가 경직되어 있으며, 이상 가정으로 나아가는 변혁과 초월의 방법론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규범적 접근은 궁극적 가정을 규명해 내고자 하지만, 현실적 가족은 변화하고 갈등하는 양태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현실적 안목에는 규범적 접근이 가족을 이상화 하고 신성시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규범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따르면, 이 접근이 취하는 정상 가족의 당위적인 개념화,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의 구분, 이에 따른 비정상 가족을 문제 가족으로 취급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이란 정상과 비정상의 유형으로 양분될 수 없으므로, 소위 ‘비정상 가정’의 정상 가정화를 위한 대책도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²⁸⁾ 다양성이 인정되는 현대 사회에서 특정한 상태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현실의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적 접근은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방법이다. 과학과 학문은 대체로 현실의 이해와 개선을 지향한다. 사회과학적 접근은 현실을 이해하고자 실제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을 개선하고자 실제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현실적 정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의 터전에서 성취 가능한 개선의 목표와 방안을 찾고자 한다. 그렇지만 개선의 궁극적 목적지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회과학적 접근의 장점은 무엇인가? 사회과학적 접근을 적용하면 가정 형태의 다양성과 가족의 기능과 역기능 및 변화하는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한국 가족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전통적 가족이 개화기에 근대적 가족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나 당시의 역사적 제약으로 전통과 근대가 뒤섞이게 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사회과학적 접근은 가족 연구에서 ‘결정적인 한 가지 문제’를 무시한다는 단점을 지닌다.³⁰⁾ 즉, 현상적이고 과학적이며 서술적인 방법이기에 가족의 본질적 의미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이루려는 궁극적 가족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상으로 규범적 접근과 사회과학적 접근의 장단점을 파악했다. 그렇다면 두 접근방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길은 가능한 것인가? 즉, 규범적 접근에 따라 규명된 가족의 본질과 이상을 목표로 삼고 사회과학적 접근에 따라 파악된 가족의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상 가정으로 나아가는 변혁의 방법론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인가?

한국 통일교인 가족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문제는 이상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방향이 아니라 현실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결 방안이란 현실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점진적 노력의 과정이기에 ‘괴리의 청산’이라기보다는 ‘괴리 좁히기’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렇다면 한국 통일교인 가족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한국 통일교인 가족의 종교적 이상과 사회적 현실은 어떠한 관계로 맺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이상은 목표가 되고 현실은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한국 통일교인 가족은 이상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실화되지 않은 이상이란 비현실이다. 목표로서의 이상이란 그 목표가 실현될 때 진정한 가치를 드러낸다.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현실이란 이상에서 멀리 있기에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출발점이요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2) 보편타당한 가치기준의 설정과 그 활용

한국 통일교인 가정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이상 지향적 가치관과 현실 지향적 가치관 사이의 갈등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생활방식을 주도하는 통일원리적 사고방식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생활방식을 주도하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 사이의 충돌이다. 그런데 현실 사회가 너무 자본주의와 세속주의에 경도되어 있어 종교적 이상을 삶의 목표로 삼고 이를 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으려면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아우르며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인도할 수 있는 새롭고도 구체적인 가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통일원리와 통일사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통일교인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에는 추상적이다. 그러므로 한국 통일교인 가족의 일상생활에 실제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가치기준이 필요하다.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가치기준은 이성과 경험의 종합에 의한 가치체계이어야 한다. 즉, 이성적 판단과 경험적 겸증이라는 양면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가치 연구는 가치를 초월적인 객관적 실재로 간주하는 超越的客觀論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의 속성으로 규정하는 心理學的主觀論을 통합해 가고 있다.

Max Scheler 는 가치와 그 위계질서는 선협적이고 가치우열감과 가치감정은 경험적이라고 하면서 양측을 종합하여 높은 가치의 5 가지 특징으로 지속성, 비분할성, 비근거성, 만족성, 비상관성을 들었다. 즉, 지속적인 가치, 분할되지 않는 가치, 덜 의존적인 가치, 만족도가 높은 가치, 감각과 덜 상관적인 가치일수록 더 높은 가치라는 것이다. 쉘러와 Necolai Hartmann 은 초월적인 가치 위계질서의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가치 위계질서가 인간이 지닌 가치감정의 층위질서를 반영함은 분명하므로 가치질서의 실재 여부를 떠나서 가치의 위계질서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욕구를 질적으로 구별하고 만족감을 질적으로 구별하였고 나아가 가치를 질적으로 구별하였으며 종국에는 가치의 위계질서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가치의 위계질서는 인간존재의 측면에서는 “감각적 가치”, “생명적 가치”, “심적 가치”, “정신적 가치”, “종교적 가치”로 나아가면서 높아지고, 포괄성의 측면에서는 집단의 가치가 개인의 가치보다 높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³¹⁾ 가치의 위계질서에 관한

연구는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를 압도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에 실제적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치판단의 기준을 활용하여 가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의 주체는 각 개인이다. 개인은 가치 사이의 우열을 가리고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판단과 선택의 이유를 분명히 확인하고 가치 활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올바른 가치판단을 하려면 육체의 감각적 체험보다는 정신적 기쁨을 더 높은 가치로 선호하는 가치감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치판단 활동에는 올바른 태도가 요구된다.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편견, 사실에 대한 과장이나 왜곡,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 등이 장애물이므로 이를 벗어나야 성숙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치갈등을 해결하려면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서 상대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³²⁾

3) 종교적 이상의 의미 재해석과 반성적 실천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궁극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단계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 단계적 목표란 이상과 현실 사이에 위치하면서 이들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의 연결을 위한 단계적 목표의 설정에는 가족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목표에 대한 재해석을 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 통일교인 가족은 현대 한국 사회의 속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통일운동이 지향하는 사회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사회를 향해 각 가정에서 해야 할 과제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전의 과정에서 종교적 이상의 의미를 현실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야 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구현하고, 다시 그 구현의 경험을 근거로 종교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반성적 실천이 지속되어야 한다.

한국 통일교인 가족이 종교적 이상과 사회적 현실 사이의 갈등에서 재해석과 반성적 실천을 지속하려면 가족이 학습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동적 학습활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의식이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학습공동체의 활동은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이나 종교적 가치관의 습관화 교육이 아니라 종교적 가치의 탐구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과도하게 이상 가정에 집착하는 경직된 태도를 벗어나, 가족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개인-가족-사회의 관련 속에서 가족을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이 개인이나 사회와 관련된 어떠한 요인에 의해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가족의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는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 현실을 넘어 이상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신앙이다.

4)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협동

종교적 이상과 사회적 현실의 괴리는 한국 통일교인 가족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은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거시적 접근은 가족문제를 전체사회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하고 사회의 변화와 가족의 관련성에 주목한다. 이 입장에서는 가족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찾는다. 따라서 근대화와 산업화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와 가족의 관련성에 관심을 둔다. 미시적 접근은 가족제도, 가족관계, 가족주기 등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혼, 범죄, 정신병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문제가족에 관심을 둔다. 이 입장에서는 가족 문제의 원인이 개인이나 개별 가족에게 있다고 보고, 가족문제의 해결도 개인이나 개별 가족의 수준에서 가능한 것으로 본다.³³⁾ 전자는 전체사회와의 제도적 구조적 관련에서 현대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접근을 한다. 후자는 문제를 가진 가정에게 기술적 원조와 지지를 행하는 전문적 접근을 한다.³⁴⁾ 가족문제의 해결에서는 위의 어느 한 접근만으로는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가족문제는 개인과 가족 및 전체사회의 관계에서 나타나므로, 그 문제의 해결에도 두 접근방안이 협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 통일교인 가족의 종교적 이상과 사회적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도 거시적 입장에서 정책적 처방을 내리고, 미시적 입장에서 개인과 가족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정책적 처방이란 협회와 개별 교회 차원에서의 선교정책이나 신앙적 지원정책일 것이다. 그리고 미시적 접근은 개인과 가정에 대한 상담과 가족생활교육이 될 것이다.

4. 결론

한국의 가족은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과 근대가 만나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反共同體的 家族 利己主義, 擬似 家族主義, 抒情的 家族主義, 消費指向的 家族關係 등으로 위기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교인의 가족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통일교인의 가족은, 한편으로는 위기적 상황을 나타내는 한국의 가족적 현실에 근거하여 살아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으로 받아들인 통일원리적 이상을 삶의 목표로 삼고 이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통일교인 가족은 전통과 근대의 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 이상과 사회적 현실의 괴리 문제라는 이중적 과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통일교인 가족이 종교적 이상과 사회적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종교적 이상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회적 현실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상충으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편타당하고 구체적인 가치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적으로 종교적 이상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반성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을 학습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회와 교회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상담과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실 세계를 넘어 초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일지라도 신앙인은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신앙인은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현실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의지를 북돋아주는 것이 신앙이지만, 종교 세계는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에는 학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학문은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현실을 넘어서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참고문헌

- 《정치학대사전》, 서울: 박영사, 1984.
- 高範瑞, 《價值觀 研究》, 서울: 나남, 1993.
- 김영모, 남세진, 신섭중, 《현대사회복지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2.
- 김홍주, 〈한국 가족 문제의 특징〉, 한국사회사연구회,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3.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중학교 도덕 3》,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5.
- 안호룡, 〈두 개의 가족원리와 새로운 가족의식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제 19 권 제 2 호 (63 호), 1996.
- 殷俊寬, 《基督教教育現場論》,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2002.
- 이재경, 〈한국가족의 반사회성〉, 《철학과 현실》 1994. 가을.
- 이재일, 〈한국 통일교인 가족의 이상과 현실〉, 선문대학교 신학부, 《말씀과 신학》 7집, 2001.
-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1984.
- 이효재, 〈현대가족사회학의 이론적 기본 문제〉, 《효강최문환박사추념논문집》, 서울: 최문환선생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77.
- 장경섭, 〈한국 가족의 이념과 실제: 가족 규범의 다중성과 내적 모순〉, 《철학과 현실》, 1994, 가을.
- 진교훈, 〈가정의 근원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제 19 권 제 2 호 (63 호), 1996.
-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1982.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3.
- 한국가족관계학회, 《가족학》, 서울: 하우, 2004.
- 한국가족학회 편, 《가족연구의 학문별 접근 방법》, 서울: 하우, 1996.
- 함재봉, 〈家의 이념과 체제〉, 《전통과 현대》 14 호, 2000, 겨울호.

Murdock, George Peter, "The Universality of Nuclear Family", Norman W. Bell and Ezra F. Vogel, ed. *A Modern Introduction to the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Timasheff, Nicholas S., *Sociological Theory*, New York: Random House, 1957, 이만갑 역, 《사회학 이론》, 서울: 수도문화사, 1961.

Morgan, D. H. J., *The Family Politics and Social The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5). 안호룡, 〈두 개의 가족원리와 새로운 가족의식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제 19 권 제 2 호 (63 호), 1996에서 재인용.

- 1) 통일운동(Unification Movement)의 중심 조직에 대한 명칭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변경되었으나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통일교'로 인식하고 있고 교회 내에서도 '통일교'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필자는 통일운동의 주체를 '통일교'로 지칭하였다.
- 2) 이재일, 〈한국 통일교인 가족의 이상과 현실〉, 선문대학교 신학부, 《말씀과 신학》 7집, 2001, pp.136-149.
- 3) 이 부분은 〈한국 통일교인 가족의 이상과 현실〉을 개정한 것임.
- 4) George Peter Murdock, "The Universality of Nuclear Family", Norman W. Bell and Ezra F. Vogel, ed. *A Modern Introduction to the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37.
- 5) 함재봉, 〈家의 이념과 체제〉, 《전통과 현대》 14 호, 2000, 겨울호, p.112.
- 6) 이효재, 〈현대가족사회학의 이론적 기본 문제〉, 《효강최문화박사추념논문집》(서울: 최문화선생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77), p.412.
- 7) 《정치학대사전》 (서울: 박영사, 1984), p.114 와 p.681.
- 8) Nicholas S. Timasheff, *Sociological Theory* (New York: Random House, 1957), 이만갑 역, 《사회학 이론》(서울: 수도문화사, 1961), pp.54-62.

- 9) 이효재, <현대가족사회학의 이론적 기본 문제>, 《효강최문환박사추념논문집》, pp.413-414.
- 10) 한국가족학회 편, 《가족연구의 학문별 접근 방법》 (서울: 하우, 1996).
- 11) 한국가족관계학회, 《가족학》 (서울: 하우, 2004), pp.26-27.
- 12) 한국가족학회 편, 《가족연구의 학문별 접근 방법》, pp.55-57.
- 13) 진교훈, <가정의 근원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제 19 권 제 2 호 (63 호), 1996, p.7.
- 14)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5), pp.34-35.
- 15)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pp.45-49 그리고 p.53.
- 1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타락론>, <기독론>의 “중생과 삼위일체”, 후편 참조.
- 17)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3), pp.390-391.
- 18)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p.393.
- 19)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p.396.
- 20)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pp.798-799.
- 21)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pp.808-810.
- 22) D. H. J. Morgan, *The Family Politics and Social The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5). 안호룡, <두 개의 가족원리와 새로운 가족의식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제 19 권 제 2 호 (63 호), 1996, pp.3-32에서 재인용.
- 23) 이재경, <한국가족의 반사회성>, 《철학과 현실》 1994. 가을, pp.71-72.

- 24) 안호룡, 〈두 개의 가족원리와 새로운 가족의식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pp.23-24, 26-27.
- 25) 최재석, 《한국가족연구》(서울: 일지사, 1982), p.289; 안호룡, 〈두 개의 가족원리와 새로운 가족의식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p.30.
- 26) 장경섭, 〈한국 가족의 이념과 실제: 가족 규범의 다중성과 내적 모순〉, 《철학과 현실》1994. 가을.
- 27) 안호룡, 〈두 개의 가족원리와 새로운 가족의식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pp.21-22.
- 28) 김홍주, 〈한국 가족 문제의 특징〉, 한국사회사연구회,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3), pp.172-173.
- 29) 殷俊寬, 《基督教教育現場論》(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2002), pp.70-71.
- 30) 殷俊寬, 《基督教教育現場論》, pp.68-79.
- 31) 高範瑞, 《價值觀 研究》(서울; 나남, 1993), pp.132-164.
- 3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중학교 도덕 3》(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단원 I.
- 33) 이효재, 《가족과 사회》(서울: 경문사, 1984), pp.3, 343.
- 34) 김영모, 남세진, 신섭중, 《현대사회복지론》(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2), p.148.